



신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 2014.05, 64-72 (9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92681
APA Style	양명수 (2014). 신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독교사상, 64-7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8/03/13 18: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양명수_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여는 글

현재 신학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목회자 양성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성서와 기독교 기본 교리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인간과 인간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렇게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서와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교육과 목회를 위한 기술을 가르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력을 기르고,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신학교육에는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목회자 양성보다 시급한 것이 인간됨의 양성인 것 같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학이 인문학적 토대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교회가 사회에 보편정신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방식과 연계해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가리킨다. 이것은 기독교가 서구의 비판적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세속화된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신학교육은 인간 양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목사이기에 앞서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목사와 평신도가 수직적 관계처럼 되어 있어서 목사의 인간성 여부가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수직적 관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 목회자의 인간성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다. 개신교는 본래 만인 사제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처음부터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말 그대로 교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인간성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목회기술자가 많다는 점에 있다. 목회는 회사를 경영하듯 하는 경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을 요구한다. 종교라는 게 원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성숙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가리켜 으뜸 되는 가르침이라고 한 것이다. 종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성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 신학 지식과 교회 운영의 논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인간됨이다.

좋은 인간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바탕이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하면서 동시에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직업의 경우에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사회 전체의 선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의사는 의사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다워야 한다. ‘답답’라고 하는 말에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분업체제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회 전체의 선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좋은 인간과 구분해서 좋은 시민이라고 했다. 좋은 시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종교도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목회자는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좋은 시민이 된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사회적 역

2. 인문학에 기초를 두고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전반적으로 신학교육에 인문학적 성찰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회가 예수 믿고 천당간다는 단순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보편적 정신을 제공하는 곳이 되려면 신학교에서 인문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문학에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인류의 보편적 노력이 담겨 있다.

초대교회에서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플라톤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플라톤 철학은 플로티누스를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 아퀴나스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칸트의 철학과 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는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20세기 초 바르트나 볼트만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과 변증법적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 신학에 인문학이 미친 영향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다. 신학과 인문학은 같지 않지만, 신학은 언제나 인문학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며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 왔다. 그리고 사실 신학의 언어 안에는 인문주의적인 통찰이 들어 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을까?

인문주의와 기독교는 원시 종교를 비신화화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플라톤과 공맹의 인문주의는 원시종교를 윤리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한편 기독교는 인간이나 동물을 바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도록 가르쳤다. 이것은 기독교가 마음씀씀이를 중요시하는 종교임을 보여준다. 때로는 거창한 예배의식보다도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정신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사도 바울은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 게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미 원시종교의 마술적 힘에서 벗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정신의 흐름은 기독교의 출현 500년 전에 동서양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확실한 언어로 해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기독교가 미신이 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문주의의 문제의식과 그 논리를 많이 흡수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신학은 인문학은 아니지만, 인문학적 통찰이 수반되어야 기독교라는 종교가 미신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

인문주의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면서 어떤 초월을 지향한다. 그것은 육적

인 욕망과 힘의 숭배를 멀리하는 데서 비롯된 초월성이다. 플라톤이나 공자 모두가 자기를 이기고 진리에 도달할 것을 요구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를 초월하도록 마음공부를 시키는 것이 인문주의가 강조한 교육의 내용이다. 인문주의는 일종의 교육 철학인데, 인간이 이미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을 잘 교육에서 실현토록 하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 인문주의였던 것이다. 인문주의는 자기 수양과 도덕성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리려 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이다. 기독교가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기독교의 반쪽만 얘기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인문주의가 추구하는 자기 초월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 자기 초월이 없으면 신앙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철시키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면에서 기독교의 자기 초월은 인문주의와 다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자기도취나 자기 정당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인문주의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사실 기독교의 신론과 기독교론 그리고 성령론 교리의 확립 과정에는 인문주의의 영향이 있거나, 적어도 인문주의를 의식한 측면이 많다. 삼위일체 교리나 기독교론 교리가 정립될 때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ontology)이 동원되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그 선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 존재 신학(onto-theology)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미신이 되지 않고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종교가 되게 만들었다. 인문주의적 사유와 결합되지 않았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은총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성을 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힘 숭배의 대중 종교는 될지 모르지만,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정신을 제공하는 고등종교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젤름은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가리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설명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정의라는 얘기이다. 그런 신관은 이미 플라톤이 『국가』에서 신에 대한 담론(theo-logia)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정립한 신관이다. 그는 신이 있다면 선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인문학의 신념이 기독교적 신념에 반영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유학에서도 기본적인 우주의 원리를 인(仁)과 의(義)로 들었다.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원리인 이(理)가 인(仁)하다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본 기독교의 신관이 인문주의적인 고민과 관계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수난을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본 것은 인문주의적인 고민에 대한 기독교적인 응답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인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문주의와의 연관과 그 차이에 있는 것이지, 인문주의를 반대하고 인문학을 배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가르칠 때, 그것이 인문주의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신학이 아닌 인문학을 가르칠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신학을 가르치면서 인문학을 설명하든,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신학을 설명하든, 신학과 인문학의 연계점에 대해 신학교에서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신학의 본질 자체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신앙이 자기수양의 문제와 별개가 아님을 신학생 시절부터 익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학생들 자신의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동서 인문학을 모두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독교 교리 발전에는 서양의 인문학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500년 동안이 인문학의 시대였다. 조선의 유학은 고도의 인문주의 영성으로 이 땅을 지배했다. 사실, 칸트 이후 서양이 가져온 자유주의적인 근대 인문학은 우리나라에 없었고, 고대의 선진유학과 중세의 성리학이 지배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유학이 가져온 영성은 고도의 자기 수양의 영성이다. 퇴계 선생의 학문은 천명에 복종하여 최고의 자유로운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기독교가 계속 존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선 유학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이 주장한 높은 도덕성 때문에 신학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나 칸트적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이나 서구 유럽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해방하면서 세속화된 사회로 치달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낮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고, 높은 도덕성

은 각자의 자율에 맡길 뿐이므로, 죄와 구원에 관한 설교의 자리가 없다. 설교는 인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만일 교육 수준이 높아진 한국인들이 앞으로 교회 찾았다면, 그것은 유학이 가져온 높은 도덕성의 요구가 한국인들에게 일상적 욕망을 넘어 도의 세계를 찾도록 만들었고, 그런 성향에 들어 있는 죄의식과 종교성 때문일 것이다. 신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인문학을 가르칠 기회를 갖는 것은, 서양에 종속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한국 기독교가 정립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고전을 가르쳐야 한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의 고전들이 있다. 고전이란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결정지은 책이거나, 인류에게 보편정신을 주는 책들을 의미한다. 대개 고전으로 꼽히는 책은 당대를 넘어 인류 역사에 의미 있는 정신유산으로 여기는 책들이다. 철학이나 문학 또는 신화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신학교에서 고전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현대의 신학과 많은 문화적 산물들이 고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을 배우면 학생들이 인간 문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 익숙하게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물음을 제기하는 방식,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생의 고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 같은 것을 고전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물론 현재 외국 신학자들이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작업은 자신들의 고전을 해석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석학적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서양의 학문을 수입하려면 고전을 수입하는 것이 낫다. 서양 고전을 읽으면 서양 문명의 특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전을 읽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해석학적 작업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 문명에서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서양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서양에서 나온 것이면 무조건 따라가기 바쁘다면, 그것은 창의적 사고 훈련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언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유를 할 수 있으려면 고전을 읽어야 한다. 동아시아 고전도 읽어야 하는데, 고전을 읽다보면 동서양

의 문제의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 해결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습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학교 시절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동서양의 중요한 고전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신학 공부의 기본이다. 원래 기본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채 현재 유행하는 얘기만 따라하면, 우리 상황에 맞는 독자적 사유를 할 기회는 없어질 것이다.

4. 신학교육은 과학적 사고와 연계해야 한다

과학적 사고란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적 사고를 가리킨다. 사회과학은 인문학만큼 신학과 가깝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신학적 해답을 줄 수 있으려면 과학적 사고방식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근대의 자연과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하고,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사회과학이 어떻게 철학과 신학에서 갈라져 나왔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상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이기심을 죄로 보지 않았는지,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정치를 신학적 가르침으로부터 해방시켰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공부할 기회를 신학교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서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근대화의 물결이 몰고 온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신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하는 당위를 역설하는 데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모른다면, 신학은 그냥 좋은 얘기이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게 된다. 물론 신학이 현실적 대안까지도 내 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못 사람들에 삶 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동안 사회과학이 해 놓은 작업이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인간의 삶에 적용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회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학문이다.

사회 과학은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의 메카니즘과 인간 욕망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이 이루는 사회의 구조를 밝히는 학문이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하는 데 사회과학의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원죄는 개인의 죄보다는 인간 사회의 죄, 세상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구조 악이다. 인간은 사회 구조를 벗어나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가 악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성서에 나오는 대로 선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non posse no peccare) 상황에 처한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구조 악은 필요악이라는 말로 정당화되기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조 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필요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조 악을 가리키고자 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인간 사이의 권력관계를 비판했지만 이후 서양의 사회과학의 역사는 사회의 구조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사회 활동을 분석해서 이데올로기 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결국 하부구조 곧 경제생활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부구조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만든 허위의식의 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라인홀드 니버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인간의 죄를 아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죄를 알기 위해서도 사회과학의 냉철한 분석을 배워야 한다.

신학교육에서 필요한 것을 몇 가지로 말해 보았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을 말한 셈이다. 신학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덕이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기상**

양명수 |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Université de Strasbourg) 개신교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